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녹색건축'은 시대적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2019 조선일보 선정
미래건축문화대상
CFAA
2019 CJ E&M 선정
미래건축문화대상
CFAA

4개월 간 접수·종합 심사 거쳐
16개 부문서 25개 기업 수상

건강과 웰빙,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녹색건축물'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저탄소녹색성장법 제54조) 및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을 의미한다. 유해물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적인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벽체는 물론 천장이나 바닥에 사용하는 마감재, 도배지, 폴, 접착제를 포함한 집안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 원자재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World Energy Balances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 증가율은 정체하는 반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법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제정하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로빌딩 의무화 및 Offsite 확대 ▲제로에너지 관계부처 협업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건

축을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물은 이제 건설사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녹색건축'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다. 스마트 빌딩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녹색건축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고 타 발전 기술에 비해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일지라 진출의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친환경 건축 및 친환경 개발계획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설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2019 조선일보 선정 미래 건축문화대상'이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상은 각 건설기업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 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7월 산학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 후보 기업군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로 응모 신청을 접수해 지난 10월 26일 마감했다. 이후 전문 심사위원들이 사전 기초조사와 서류심사를 토대로 종합 심의를 거쳐 시상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재생 등 16개 부문에서 25개의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 참조)

심사위원장이던 경기대 건축학과 윤희진 교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스마트한 주거시설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 격려하는 '2019 조선일보 선정 미래 건축문화대상'은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상이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석태 객원기자

◇2019 조선일보 선정 미래건축문화대상 수상업체

부문	기업명	브랜드
스마트시티	GA 코리아	용인아트투어랜드 & GA 스마트시티
아파트(웰빙)	GS건설	방배아트자이
아파트(고객만족)	HDC현대산업개발	홍제원 IPARK
리모델링	PIA자산운용	라센트라
오피스텔(고객만족)	건설그룹대건	강남 헤븐리치 더 씨릿 761
아파트(주거복지)	금호산업	광주 금호 리첸시아
도시재생	대라종합건설	대리수 어썬브릿지
쇼핑몰(테마파크)	도원투자개발	동성로 태왕스파크
아파트(조경)	동일스위트	원흥 동일스위트
아파트(브랜드)	롯데건설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주상복합(주거복지)	서진종합건설	더스테이 프라이월드
타운하우스(친환경)	선화산업개발	별내 루이어 닷별
도시개발사업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수경하우징	삼정 아트테라스 정동
단독주택	알비디케이	운정신도시 라피아노
아파트(친환경)	엠디엠플러스	연지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IoT)	월드타워건설	월드스테이
오피스텔(친환경)	유탑건설	유탑 유플러스 트윈시티
호텔	유탑건설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
건물주택임대관리	이랜드서비스	이랜드서비스
오피스	재권	이너메스 미국
쇼핑몰(문화복합)	제이 유한책임회사	스타플러스
디벨로퍼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자연친화적 전원마을 개발
타운하우스(고객만족)	한국토지신탁	산방산 코야루 아이비타운
주상복합(고객만족)	한원건설그룹	한원힐트림-더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	해경건설	해경 오 루체

기고

기념비적 건축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건축 추구해야

세계적 건축비평가 케네스 프램프톤(Kenneth Frampton)은 현대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원형(archi-)의 위상은 약화되고, 그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의 구축성(techn-)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는 본래 건축(architecture)을 정의함에 있어서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order, style)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art, technology)이 늘 공존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현대건축에서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양식의 보편적 형식을 뛰어넘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즘 우리는 가까운 주변에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형태와 공간을 지닌 건축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그러다보니 웬만큼 도발적인 형상의 건축물에도 그다지 큰 경이로움이 없이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난해함을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의 등장과 이를 매개로 한 디자인과 구조해석, 정밀하고 혁신적인 시공방법 등 건축 프로세스 상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에서의 기술은 이제 디자인 개념

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결정인자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의 시각에서는 이를 건축의 본질적 대상으로까지 경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현대의 건축적 담론은 그 이전까지의 몇몇 선언적 이념들의 지배적 형식을 넘어서서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며 그 다양성은 다중적 계열화라는 특징적 현상으로 현대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는 동시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된 층위와 범주에서 현대건축

을 바라봄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기념비적 건축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수히 많은 사회적 관계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로부터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창의적 실험을 위해서라면 더욱 더 그러하며, 이는 건축계의 여러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건축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지표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윤희진·경기대 건축학과 교수